

소득은 행복의  
독립변수인가? 조절변수인가?  
－ Eudaimonia와 Hedonism  
관점에 기반한 논쟁을  
중심으로 －

강상준 / 문진영

서강대학교

## 주 제 분 류

사회·정치철학, 사회복지정책, 기타인문학

## 주 제 어

행복, Eudaimonia, hedonism, 주관적 행복,  
심리적 행복, 행복지수, 공리주의, 최대다수 최대행복

## 요 약 문

본질적으로 행복은 개인에게 속하지만, 사회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는 다층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정치, 경제, 사회, 심리 등 행복을 다루는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개인의 특성, 개인을 둘러싼 환경 등 내적·외적인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 중 논쟁의 중심이 요인은 소득으로 욕구이론에 기반하여 '꾸준한 소득의 향상이 행복을 증가시킨다'는 주장과 만족점(set point) 이론에 의거한 '행복의 역설' 등 상반된 논쟁들이 존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다. 핵심 논지는 행복이라는 가치에 소득과의 상관성에 대한 논쟁이 활성화 될수록 경합성과 배재성의 논리가 배태(胚胎)된 '행복의 상품화'가 학문적 발전과는 무관하게 점점 더 깊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기회를 증진시키는 행위 등이 다른 가치들과 충돌할 위험성을 최대한 약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복의 상품화(시장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행복의 탈상품화'를 정책적으로 꾀하여야 한다. 개인을 둘러싼 행복 달성 기제인 가족(호혜성)과 국가(권위), 시장(경쟁)의 세 가지 매커니즘이 상호 공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화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서 '공동체의 최대 행복'이라는 행복의 공공성 강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접 수 일 : 2018년 10월 29일

심사완료일 : 2018년 11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1월 12일

생명연구 제50집 2018년 11월  
 Studies on Life and Culture  
 Vol. 50, Nov 2018, pp. 361~408  
<https://doi.org/10.17924/solc.2018.50.361>

## 소득은 행복의 독립변수인가? 조절변수인가?

- Eudaimonia와 Hedonism 관점에 기반한 논쟁을  
 중심으로 -\*

강상준\*\*, 문진영\*\*\*  
 서강대학교

### I. 들어가는 글

문명사회로서 지속적인 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과거와 현재는 물론 다가올 미래에 까지 되풀이 되는 대표적인 사회적 물음이 있다면, ‘빈곤(poverty)과 행복(happiness)’에 관한 것이다.

빈곤에 대한 물음이 원인과 책임을 찾는 것에서 시작하여

\* 이 논문은 2017년 한국연구재단(과제번호 NRF-2017S1A5B8057479)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제1저자(e-mail: [ksj962969@gmail.com](mailto:ksj962969@gmail.com))

\*\*\* 교신저자

‘해결방안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사회학적 측면에 가깝다면, 행복에 대해서는 ‘무엇이 행복인가?’라는 사유를 바탕으로 한 인문학적 측면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두가지 주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맥락이 일견 다르게 보일 수도 있으나, 개인, 사회, 국가로 확대되는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빈곤과 행복’은 정책적 아젠다로 귀결되고 있는 핵심적인 현실 이슈이다. 특히 자본주의 복지국가 모델에 있어서는 이념적 패러다임과 철학적 기반을 어떻게 견지하느냐에 따라 사회정책의 방향성과 내용을 확연히 구분짓게 되는 기본 바탕이 된다.<sup>1)</sup>

빈곤은 그 자체가 지닌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접근방식이 다분히 계급적이고 정치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행복은 빈곤만큼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요인 혹은 결과이면서도 접근방식에 있어서 빈곤과는 다른 관점을 지니게 된다. 즉, 인간의 내면적 요인으로 보는 심리학적 접근과 인문학적 이해가 우선시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Paul Samuelson이 행복을 소비와 욕망의 관계로 규정짓고 경제학적 정의를 다음의 행복공식으로 제시하면서 ‘행복’ 연구에 대한 학문적 흐름에 전환의 계기가 마련된다. 즉, 인간의 행복은 개인이 지닌 욕망을 소비의 행위를 통해 얼마나 충족하느냐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1) 국가의 정책적 측면을 보았을 때, 프랑스에서는 2009년 Sen과 Stiglitz 두 명의 노벨경제학 수상자에게 국가의 경쟁력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GDP를 대체하는 인간개발지수 HDI(Human Development Index)를 제안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 주었고, 부탄은 국민총행복 지수 GNH(Gross National Happiness)를 활용하여 사회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한국의 서울시는 2015년 「서울형 행복지표」를 제안하여 서울시민을 위한 사회공동체 지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말하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인 (경제적)소유의 정도가 행복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text{행복공식} : H = C / D \text{ 2)}$$

Samuelson의 행복공식은 행복의 수준이 향상되려면 재산이 점점 더 증가하면 된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박으로 소득(income)의 증가와 행복(happiness)의 향상성 사이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실증적 연구가 Esterlin(1974)에 의해서 발표가 된다.

「Esterlin Paradox」라 불리우는 연구 결과가 발표<sup>3)</sup>되면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여러 학자들에 의해 행복과 소득의 관계성에 초점을 둔 논쟁이 그 뒤로 수없이 따라 붙게 되었다.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행복에 대한 접근은 개인, 사회, 국가와 행복이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연구하는 경향성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빈곤의 담론이 그랬던 것처럼, 행복도 담론화 되면서 이슈가 되고 의제로 발전하여 이념이 내포된 정책적 아젠다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2) P. Samuelson의 행복공식 변수 H : happiness 행복, C : consumption 소비, D : desire 욕망.

3) 일정시점에서 분석해 보면(cross-section analysis), 소득이 높은 사람은 소득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더 행복한 반면에, 시계열적인 분석을 해보면(time series analysis)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이후에는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의 증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우 미미한 증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소득과 행복의 관계가 단층적인 분석과 시계열적인 분석 간에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현상을 ‘이스털린 역설’이라고 칭한다(Esterlin, 2010; 문진영, 「이스털린 역설에 대한 연구 : 만족점의 존재여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4권 1호, 2호, 2012, 55쪽 참조).

과연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가? 본 연구를 통해 탐색해 보고자 하는 논제이다. 이를 위해 소득과 행복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기존 연구 경향을 분석하고, 여기서 제시된 행복을 설명하는 중요 요인들을 파악하여 소득과 행복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해석을 결과로 도출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정책적으로 행복이 어떤 함의로 정립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진행 순서는 2장에서 행복이 어떻게 정의되고 개념화 되어 있는지를 고찰하고, 3장에서 행복은 어떻게 측정되었는가를 각 관점에 기초하여 파악해 보고자 한다. 4장과 5장에서는 소득과 행복을 관계성에 대한 연구 경향과 그에 따른 논쟁을 파악하여 각 논쟁의 주요 주장과 중요 쟁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여 소득과 행복이 과연 어떤 관계성을 지니고 있는지 결론 내고 그에 따른 복지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II.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에 관한 연구의 공통적 경향을 분석해 보면, ‘행복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존재하는 그 어떠한 것 - 관념이건 현상이건 - 도 측정할 수 있다’<sup>4)</sup>는 사회과학연구의 특징을 행복에 대한 연구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려는 학문적 노력이다. 동시에 가치관 차이나 고유한 사회문화적 다양성으로 관찰이나 측정의 보편타당함을 담보해 내기 어려운 개념인 행복을 사회과학의 영역

4) Allen Rubbin, Earl Babbie,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1997 참조.

으로 위치 짓기(positioning)위한 첫 단계이기도 하다.

빈곤처럼 사회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담론화된 가치(value)로서의 행복을 철학적·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학문적 맥락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그렇기에 행복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행복을 어떻게 규정하고 개념화할 것인가’는 행복 연구(물)의 절대 다수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전제되는 경향성을 지니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행복에 대한 개념화는 두 가지 측면의 관점으로 구분되어 접근이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행복의 주체인 인간의 ‘내면적인 가치(intrinsic value)’ 요인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외적인 조건(external condition)’ 요인에 초점을 맞추느냐로 이는 인간의 물리적 실존 경계를 구분하는 접근 관점이다. 역사와 시대 상황에 따라 인간 실존의 ‘내재된 가치의 완성’ 정도가 행복의 달성인지 혹은 외부 환경과의 관계성이 행복에 이르는 방식인지 등 행복에 대한 개념화의 초점이 변화되어 왔다.<sup>5)</sup> 예를 들어 종교가 사회전반을 지배하던 중세 시대의 행복은 ‘신(God)’의 축복이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는데, 신(God)과 같은 인간 외적인 영역이 행복을 좌우한다는 것이 그것이다.<sup>6)</sup>

두 번째는 인간이 지닌 내재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욕망’에 기초한 주관적 만족(well-being)이나 쾌락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개인이 지닌 가치(value)나 역량의 완성

5) 구교준 외, 「행복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정부학연구』, 제21권 제2호, 2015, 98쪽 참조.

6) McMahon, D. M. *Happiness: A History*. NY : Atlantic Monthly Press, 2006: 김윤태, 「행복지수와 사회학적 접근법 :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 『한국사회학회 공동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2009. 76쪽 참조.



정도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보는 것이다.

쾌락주의(hedonism)와 행복주의(eudaimonism), 두가지로 구분되는 인간 중심의 개념화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소득(경제력)’과 ‘행복’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행복경제학’<sup>7)</sup>의 주된 연구과제이자 논쟁의 중심에 있는 관점이다.

쾌락주의와 행복주의는 서로 다른 철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대 그리스 철학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인간의 행복을 바라보는 두 가지 견해로 병존하면서 사회과학 분야에 뚜렷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sup>8)</sup> 그만큼 행복에 대한 정의는 단일 차원의 개념으로 단순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행복이 지닌 내재된 가치 및 개념과는 별개로 수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고, 이를 통해 학문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행복이 인류에게 주는 역설이 아닐 수 없다.

행복에 대한 개념적 특성이 행복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데 난제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나, 사회정책적 측면으로의 행복을 다루기 위해, 다면적 성격을 지닌 행복의 개념과 특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행복에 대한 논쟁의 맥락과 흐름을 명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7) 『ECONOMIC AND HAPPINESS : FRAMING AND ANALYSIS』을 쓴 Bruni(2005)는 아담스미스로부터 시작되는 고전경제학 이후, 맬더스, 벤담을 거쳐 이스털린에 이르기까지 경제학자들에게는 개인과 국가의 부에 대한 성격의 규명 뿐만 아니라, 행복과 경제 간의 관계성에 대한 측면의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벤담의 공리주의는 행복이 효용으로 압축되어 있다고 예시를 들며 여러 경제학자들이 내보인 행복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8) 구교준 외, 2015, 99쪽 참조.



## 1. 행복은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가? 외부에 존재하는가? : 철학적 접근에서 과학적 접근으로

‘행복’이라는 개념의 존재와 존재의 경계(인간 내면 혹은 외부환경)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던지는 관점은 철학적이고 인문학적 접근의 성격이 강하다. 이같은 관점의 행복연구는 ‘인간 본성을 실현하는 목적으로서의 행복을 추구’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행복에 대한 정체성을 좀 더 명확하게 밝혀내고자 하는데 있다.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로 상징되는 고대 그리스의 행복에 대한 정의는 ‘인간 고유의 능력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지적·도덕적 활동’으로 개인의 도덕적이고 가치있는 삶, 인간이 지닌 덕목에 대한 성숙의 길 자체로 행복을 보고 있다. 이는 인간을 둘러싼 외적(사회적)인 관계성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공동체에서의 좋은(good) 삶, 사회적 존재로서의 최고의 선을 행복(eudaimonia)으로 보는 것이다.<sup>9)</sup>

행복을 실존적 인간의 외적 환경(environment : 사회)에 치중해서 바라보던 관점은 중세시대에 접어들면서도 여전히 유지되었지만, 대상과 방식에 있어서는 다른 형태를 띠게 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도덕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행복의 중요한 일부라고 받아들인 반면, 교회의 절대적 영향을 받았던 중세의 철학자들은 행복은 신(神)의 축복을 통해서 가능

9) Nussbaum, M. The Fragility of Goodness: Luck and Ethics in Greek Tragedy and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구교준 외, 2015; 홍병선, 「행복에 관한 인문학적 성찰」, 『시민인문학』 Vol 21 93~123,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110쪽 참조.

한 것으로 여겼으며 종교적 믿음(신앙)이 있는 자에게 신이 부여하는 영원한 축복이자 조건(pre-condition)으로서 행복의 개념을 확장시킴과 동시에 인간의 외적인 영역에 존재하는 이상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더욱 강화시키게 된다.

행복이 인간이라는 실존 밖에 존재하는 것에서 내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된 것은 공리주의(Utilitarianism)의 등장과 함께 이며, 제레미 벤담(J. Bentham)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모든 개인이 자신의 쾌락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달성하는 「바람직한 사회」를 주창하면서 ‘행복(happiness)’을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닌, 인간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value)’이자 사회적 ‘목표(goal)’로 까지 그 위치를 재정립하게 된다. 행복에 대한 물음을 인간이라는 실존 자체에 귀결되도록 하였고, 철학적 접근으로 시작하여 종교적으로 강화되었던 실천 방식을 정치경제적 접근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정책적 의제로 구체화되는 단초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는 고대 그리스철학 시대부터 시작되었던 행복에 대한 질문과 사유의 흐름에 있어서 근본적 질문 - 인간을 중심으로 한 - 은 유지한 채 행복의 개념과 성격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킴은 물론, 쾌락주의(hedonism)와 행복주의(eudaimonism)라는 현대 사회의 행복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 큰 두가지 흐

10) 문진영은 근대적 의미에서 최초로 행복에 대한 사회적 해석을 시도한 인물로 제레미 벤담을 제시하였는데, 벤담의 저서인 『도덕과 입법에 관한 원칙』(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 and Legislation, 1948: 70)에서 “행복은 ‘쾌락의 향유’와 ‘고통으로부터의 안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인용하면서 벤담의 행복에 대한 관점은 쾌락주의적(hedonistic)이라고 해석하였다(문진영, 2012, 56쪽)

를 자리하도록 하였다는 상징성을 지니게 된다.

## 2. 쾌락주의(hedonism)와 행복주의(eudaimonism) : 과학적 접근의 두 갈래

행복과 행복을 달성하는 요인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실증연구에 있어서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 접근방식을 갖게 된다. 인간의 행복을 욕망이 충족된 상태로 보고, 이를 위해 ‘소득(income)’과 같은 물리적 요소들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측면과 비물리적 요소로 내적 성장, 자기 긍정, 자율성 등의 정서적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치 실현의 측면을 행복으로 보는 것이다.

소득과 같은 외적 요소의 투입을 통한 욕망 충족과 정서적 요소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내재적 가치 실현이라는 상이한 두가지 접근방식은 ‘행복 달성’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가치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연 무엇을 활용할 것인가? 와도 연결되어 원인과 결과 간 두 요인의 관계성을 증명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도 확연하게 차이가 남을 보여준다.<sup>11)</sup>

### 1) Hedonism : subject well-being

앞서도 언급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중심을 이루었던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적이고 가치있는 삶으로서의 행복에 대한 접근 이외에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추구

11) 성보훈·윤선아, 「행복의 정의와 발달단계별 결정요인」, 『뇌교육연구』, 6권, 2010; 구교준 외, 2015; 김요한, 「행복과학과 행복철학」, 『새한철학회 논문집』 철학논총, 제85집, 2016, 제3권 참조.

하는 쾌락추구로서의 삶'을 주장한 그룹이 존재하였는데, 이들을 에피쿠로스 학파라 한다. Tatarkiewicz(1976)는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 정의로우면서 절제되는 삶을 위해 자신 안에 있는 쾌락의 근원을 발견하고 그것이 충족되는 과정을 올바른 삶으로 바라보는 철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삶에 있어서 시작과 끝'이 쾌락의 추구이기도 하지만, 쾌락의 추구나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고통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쾌락이 달성되는 것과 동일함을 주장하였다.<sup>12)</sup> 결국, 행복은 고통이 최소화된 삶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에 관건이 있음을 의미한다.

Hedonism 관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이념적 가치는 물론, 행복에 대한 개념적 모호성을 주관적 안녕(subject well-being)으로 확립하고 하위 개념으로 삶에 대한 만족감과 긍정적인 감정의 존재 여부 등 구체화 된 개념으로 발전시키는 기본 바탕이 된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장한 공리주의는 행복은 곧 효용(utility)이고, 이는 곧 쾌락의 극대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쾌락을 통해 얻어지는 효용을 행복과 동일시 함은 물론, 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간 행위의 결과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구성원들의 쾌락 총량에 두었다는 것은 hedonism의 전통과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공리주의는 모든 개인이 자신의 쾌락을 극대화 하려는 노력을 통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달성될 수 있는 사회를

12) Tatarkiewicz, W. *Analysis of Happiness*, Warsaw: Polish Scientific Publisher, 1976, p. 318; Posner, R. A. "Utilitarianism, Economics, and Legal Theory",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2001, Vol. 45, 293-300 참조.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라고 강조하였다. 개인의 주관적인 쾌락처럼 현실적이고 감정적인 내용이 바로 사회를 구성하고 굴러가게 하는 매커니즘의 원동력이라 보고, 행복과 경제적 행위를 연계시킬 수 있는 당위성과 명분을 제시하게 되었으며, 오늘날 주류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는 신고전경제학의 행복연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sup>13)</sup>

신고전경제학은 경제적 가치와 활동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근거로 사회구성원들의 행복 총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행위의 규범을 ‘효용의 극대화’에 맞추게 되는데, 사회구성원들의 행복 총량은 개인의 행복이 극대화 되는 것을 의미하고, 개인의 행복 총량이 증가하는 것이 사회와 국가의 경제적 발전과 동일하다는 논리적 접근을 만든다.

Hedonism 관점에 기반한 공리주의가 결국 오늘날의 주류경제학인 신고전경제학에 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으로 귀결되고, 이를 경제발전의 기초적 명분으로 삼게 된다.

심리학에서도 Kahneman(1999; 2003)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행복을 hedonism 쾌락과 동일시 하였다. 이는 고통과 대비되는 정신적·육체적 쾌락에 초점을 두어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의 조류를 이루게 된다. Kahneman(2003)은 육체적 즐거움을 비롯한 욕망에 대한 자기이해의 달성들이 쾌락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상태를 달성하는 것이 행복한 상태를 구성한다고 하였다.<sup>14)</sup>

전통적 심리학이 인간의 부정적인 내적 기제(우울, 정신분

13) Frey, B., & Stutzer, A. “Happiness Prospers in Democrac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 1, 2000, p. 82 참조.

14) Bruni & Porta, 강태훈 옮김, 『행복의 역설: 행복의 정치경제학』, 경문사, 2005, 12쪽 참조.

열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sup>15)</sup>, 기쁨이나 행복과 같은 긍정적 심리상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는 경향(조류)을 ‘hedonic psychology’라고 한다. Hedonic psychology는 긍정적 심리상태를 쾌락의 관점으로 조명하여 hedonism적 충만 상태가 행복과 동일한 것임을 주장하게 된다.

인간의 부정적인 내적기제 보다는 긍정적인 기제에 초점을 맞춘 심리학에서의 연구 경향들은 행복의 개념과 hedonism에 기초한 인간의 주관적 안녕(subject well-being)에 대한 과학적 접근에 기여를 하게 되고, 경제학에 기반한 최대 다수의 행복을 극대화 하는 철학적 기반과 접목되는 지점을 생성하게 된다.

이 지점이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행복과 소득의 유의미한 관계성 여부이며, Esterlin(1974)이 제기한 행복의 역설이 치열하게 논쟁으로 시작되는 근원적 물음의 시초인 것이다.

Hedonism은 행복을 개인의 기본적 욕구이자 욕망의 달성 상태인 ‘쾌락’으로 파악하여 기본적 욕망이 충족된 개인의 만족 수준이 행복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만족 수준 즉, 주관적 안녕(subject well-being)을 통해 행복에 대한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 끊임없는 논쟁이 있지만, 결국 hedonism에 기초한 행복에 대한 연구의 경향은 인간의 기본적 욕망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더욱 발전시키는 기본 바탕이 된다.

---

15) Meyers & Diener는 부정적인 심리상태에 대한 연구와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연구하는 비율이 17:1에 이를 정도로 불균형 정도가 심하다고 분석하였다(Meyers, D., & Diener, E.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Vol. 6, 1995, pp. 10-19 참조).



## 2) Edaimonism : psychological well-being

행복에 대한 연구가 hedonism 철학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 경향이 있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욕망의 충족상태인 주관적 안녕(subject well-being) 수준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고 행복에 대한 개념화를 비롯하여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일정 수준으로 확보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6)</sup>

Hedonism 관점이 행복에 관한 연구의 중심 경향을 이루고 있다고는 하나, 그에 대한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행복에 대한 연구가 ‘행복’이라는 담론을 다루고는 있으나, ‘행복(불행)의 주체는 인간’이며, 인간의 심리적 상태로서 행복은 hedonism 욕망의 충족에 포함되는 변인(가장 대표적으로 ‘소득’)으로 완벽히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반대 의견의 중심 내용이고, 비판의 주된 논거이기도 하다.

Eudaimonism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개인적 욕망의 달성인 쾌락의 상태를 유지하는 hedonism 행복이 아닌, 도덕적으로 가치있는 삶(virtuous life)을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 얻어진다는 관점이다. Ryan & Deci(2001)도 Eudaimonia가 의미하는 행복은 hedonism 관점에서 인간의 욕망이 충족될 때 달성되는 상태로 볼 수 없으며, 이것을 well-being 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아울러 욕망 충족의 결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some outcome are not good for people” 을 주장한다.<sup>17)</sup>

16) Veenhoven, R, “Developments in Satisfaction-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37, No. 1, pp. 2-3; 문진영, 2012, 58쪽 참조.

17) Ryan, R. M., & Deci, E. L.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52, 2000, pp. 145-146.



Eudaimonism이 주장하는 행복은 도덕과 덕성이 있는 삶을 통해 달성할 수 있으며, 이는 재물의 축적보다는 정신적 풍요로움(spiritual enrichment) 혹은 덕성의 개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sup>18)</sup>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 및 결과로서의 행복이 기본적 욕구 충족에서 오는 쾌락(hedonic pleasure)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드러나는 가장 큰 이유는 ‘hedonic pleasure’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1차원적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반면, ‘eudaimonic pleasure’는 가치에 몰입(deeply held values)된 행위와 삶(people’s life activities)이라는 보다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접근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다.<sup>19)</sup> 이 차이점이 바로 행복에 대한 개념과 접근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한다.

Eudaimonism 관점의 시작은 아리스토텔레스로 부터 연유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eudaimonism 행복으로 이끄는 요소를 12가지<sup>20)</sup>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간 고유의 능력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활동성’의 상태를 행복으로 이해하였다.<sup>21)</sup> 즉, eudaimonia 행복은 사회적·공동체적인 관계성에서의 행복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심리학 분야에서도 hedonic pleasure를 대변하는 주관적 안녕(subject well-being) 개념에 대비되는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 개념을 eudaimonia 행복으로 제시

18) Lu, L., “Understanding Happiness: A look into the Chinese Folk Psycholog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 2: 2001, p. 421 참조.

19) Ryan, R. M., & Deci, E. L. 2000, p. 146 참조.

20) 용기, 관용, 자존, 친절, 재치, 정의, 정제, 희망, 온유, 정직, 양심, 고결.

21) 정보훈·윤선아, 2010, 106쪽 참조.

하게 된다.

심리적 안녕이란,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성장과 발전의 결과로 정서적 만족감이라 정의하고 있다.

Ryff & Keyes(1995)는 자율성(autonomy), 성장(growth), 자기긍정(self-acceptance), 삶의 목적(life purpose), 탁월성(mastery), 긍정적 관계(positive relatedness) 등 여섯 가지 측면을 통해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 즉, 행복이 발현된다고 하였다.<sup>22)</sup>

‘좋은 삶(the good life)’, 행복한 삶이란 인격의 성장을 위한 최고의 가치들을 달성하는 것으로 Seligman(2009)은 이와 같은 최고의 가치들이 자아 성취감, 소속감 등의 요소로 충족될 수 있다고 하였다.<sup>23)</sup> Ryan & Deci(2001), Peterson et al(2005) 등 다수의 심리학자들도 eudaimonism 관점으로 개인의 행복을 주장하며,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잠재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성장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감’이 행복이라고 하였다.<sup>24)</sup>

경제학 분야에서의 행복에 대한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효용이라는 개념과 논리적으로 동일시 되면서 효용의 극대화라는 공리주의적 가치와 맞물려 hedonic 측면의 접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eudaimonia에 기반한 연구는 주류 경제학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였다. 반면, 심리학 분야에서는

22) Ryff, C. D., & Keyes, C. L. M.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9 1995, pp. 719-727 참조; 구교준 외, 2015, 107쪽 참조.

23) M. E. P. Seligman, *Authentic Happiness*, New York: Free Press, 2009, p. 27 참조.

24) 홍병선, 2011, 109쪽 참조.

오히려 eudaimonia에 기반한 행복 연구가 중심적 흐름을 유지함과 동시에 1970년대부터 Kahneman, Diener 등의 학자들이 등장하여 hedonic psychology라는 행복에 대한 심리학의 연구 흐름을 새롭게 구성하게 된다. 이와같은 경제학과 심리학의 상반된 경향성은 학문 영역간 주제의 교차성을 경험하게 되고 행복 연구를 사회과학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된다.

행복이라는 공통된 주제가 다자화된 학문 영역의 이슈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많은 연구들에서 Esterlin의 역설(1974)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즉, 소득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조건이 행복을 달성하도록 하는 ‘결론’에 대한 ‘동의’ 혹은 ‘반론’의 주장을 펼쳐 나가기 위해 Hedonism과 Eudaimonism 철학을 의도적이면서 뚜렷하게 구분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다양하게 나타게 된다.<sup>25)</sup> 이는 전통적으로 주관적인 개념을 다루지 않았던 경제학에서조차 ‘행복’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이루어지게 되어 행복경제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행복에 대한 각각의 철학적 접근을 분류하여 정리한 최근의 연구인 Bruni & Porta(2005)의 『Economics and Happiness: Framing the Analysis』에서는 Frank, Frey, Stutzer, Easterlin과 같은 학자가 Eudaimonia를 전형적으로 강조하는 입장이라 하였고, Mattravers, Nussbaum, Pasinetti, Sugden, Zamagni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Eudaimonia와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는 연구 경향을 보인다고 하면서 행복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철학적 확장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25) 김균, 「이스터린 역설과 관계제」, 『사회경제평론』, 제42호, 2010. 20쪽 참조.

### III. 향상된 행복의 측정

행복에 대한 측정은 ‘개념화된 행복’을 수치화 하여 측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결과로서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요소들을 투입하여야 하는가?로 귀결되고, 향상의 원인이 되는 투입(물리적 요소)을 어떠한 형태(행위)로 늘려야 하는가를 제안하도록 하거나 특정 정책의 형태로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들이 뒷받침 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 라며 물리적 요인들의 투입을 통해 행복의 측정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근본적 물음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인간의 행복(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행위가 경제적 요인에 맞추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사회정책적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함이 이 논의의 지점인 것이다.

철학적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행복에 대한 개념이 심리학, 경제학적, 사회학적 연구의 다양성을 이끌어 내었지만, 행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사회과학적 측면에서의 논쟁은 그 만큼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행복이 눈에 보이지 않으며 주관적이고 상대적일 뿐만 아니라, 감정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학에서는 행복이 오랫동안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으며,<sup>26)</sup> 심리학에서는 과학적 객관성을 담보해 내기 위

26) 문진영, 2012, 56-58쪽 참조.

해 행복을 측정하는데 있어 뇌파와 같은 객관적 생리 신호를 사용하는 접근방식이 사용되기도 하였다.<sup>27)</sup>

행복의 수준을 측정함에 있어서 개인의 응답 자료를 기반으로 스스로가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타당성(validity)과 신뢰성(reliability)의 부족이라는 반론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응답자들이 실제보다 행복하다고 응답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반박하거나, 심지어는 날씨와 같은 요인들이 응답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있다.<sup>28)</sup> 그러나, 실증적으로 우울, 자살, 뇌파, 심장박동 등 서로 다른 척도나 방식을 도구로 활용하여 측정된 지표들이 행복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는 등의 타당성이 확인되어 근거 자료로 제시되기도 하였다.<sup>29)</sup> 이런 맥락에서 Diener et al(1999)과 같은 학자들은 ‘행복은 내적인 일관성, 신뢰성, 타당성에 있어서 과학적인 기준을 충족시킨다.’ 고 하여 사회과학적 연구에 있어서 방법론에 대한 논란보다는 각 연구에 있어 행복에

27) 구교준, 2015, 110-114쪽; 행복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과연 가능한가? 라는 학문적 의문을 뛰어넘은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조동훈은 인간에게 주어진 한정된 조건(자원)에서 다양한 선택을 통한 효용의 극대화 형태를 연구하는 학문이 경제학이며, 따라서 최근 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흥미로운 주제로 부각된 행복 연구는 근본적으로 경제학의 근간이 되는 주제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조동훈, 「행복의 분석적 개념과 측정방법」, 『노동경제논집』, 제40권 제3호, 2017, 80쪽 참조.

28) Schwarz, N., & Strack, F. “Reports of subjective well-being: Judgemental process and their methodological implications”,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1999. p. 62 참조.

29) Fernandez-Dols, J. & Ruiz-Belda, M., “Are smiles a Sign of Happiness? Gold medal Winners at the Olympic Ga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9, No. 6, 1995, pp. 1113-1119; Frey, B.S. & Stutzer, A. *Happiness and Economics : How the economy and institutions affect well-being*,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2002; Davidson, R, Marshall, J., Tomarken, A., & Henriques, J. “While a Phobic Waits: Regional Brain Electrical and Autonomic Activity in Social Phobics during Anticipation of Public Speaking”, *Biological Psychiatry*, Vol. 47, No. 2: 2000, pp. 85-95 참조.

대한 개념과 측정이 얼마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미 발전되었음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행복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다양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정확성을 지니고 있기에 측정되어 질 수 있다는 데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이다.<sup>30)</sup> 본 연구에서는 행복 측정방식의 대표적인 두가지 측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1. 물리적 조건에 대한 측정의 방식

행복을 향상시키는 조건으로 물리적 요소들을 제시하는 방식은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증명되었듯이 경제이론적 측면에서 정당화되고 있다. 소비를 통한 개인의 행복을 ‘효용’으로 정의하여 소득, 교육, 주거 형태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을 투입 요소로 보고 행복은 이를 통해 달성되는 결과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투자, 노동환경, 사회서비스 등의 거시경제적 수준들도 개인의 소비 효용을 높이는 행복의 지표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 요소들은 전통적 경제이론의 틀에서 보면 개인이 느끼는 만족감을 효용으로 정의하여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미시적·거시적 경제활동과 일맥상통하게 되고, 국가 차원의 사회정책과 관련되기도 한다.

행복이라는 개인의 주관적·감정적 영역이 실증주의적 학문인 경제학에서 효용 측정과 연관된 지표로 측정되고 추론

30) 우창빈,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정책은 가능한가? : 행복을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의 이론, 논란, 가능성과 조건들」, 『행정논총』, 제51권, 제2호, 2013, 297쪽 참조.



되는 객관화 과정에서는 소비와 관련된 경제 요소들이 핵심 요인이 된다. 즉, 물리적 요인에 대한 투입( $x$ )을 선택하여 산출물로 기대되는 행복( $y$ )의 수준이 정적으로 증가되는 효용성으로 나타난다면 투입요소  $x$ 를 선택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정책)행위인 것이다. 이 관점에서는 각 개인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소득, 소비 등의 사회적 총합을 나타내는 경제적 지표들을 최대화 시키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결정이다. 경제행위에 대한 학문적 평가를 통한 승인에 있어서도 평가의 중심에 ‘행복’ 혹은 ‘삶의 질’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와같은 맥락이다.

투입요소( $x$ )가 행복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서 유의미하게 확정되기 위해서는 객관화되고 체계화된 지표 혹은 지수화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행복 향상을 위한 요인들의 논의에 있어서 지수화, 표준화 되기 쉬운 것들이 우선적으로 행복 판단의 요인들로 채택되었고, 수량화, 표준화에 용이한 물질 지표들이 행복 연구의 정당하고 유의미한 지표로 널리 활용된다는 주장이 일면 타당하게 받아들여 지게 된다.<sup>31)</sup>

물리적 요소들에 초점을 맞춘 행복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수로는 국제기구인 UNDP에서 1994년도부터 제시하고 있는 인간개발지수(HDI : Human Development Index), OECD의 삶의 질 지수(NIW : national Index of Well-Being), 경제연구를 통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신경제재단(NEF, New Economics Foundations)의 행복한 지구촌지수(HPI : Happy Planet Index) 등이 있다.<sup>32)</sup>

31) 김혜경, 「객관화된 행복: 측정의 기술과 측정 너머의 감성」, 『감성연구』, 제 15집, 2017, 21쪽 참조.

32) 이외에도 행복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들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 미시간대 사회



UNDP의 HDI는 Sen의 역량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예상수명, 교육정도, 소득수준 등을 포함하여 경제, 건강, 교육과 같은 객관적 지표들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개별 국가들의 행복 수준을 측정한다.

$$HDI = 1/3(\text{평균수명지수}) + 1/3(\text{교육지수}) + 1/3(\text{GDP 지수})^{33)}$$

HDI는 행복 수준 측정에 있어서 GDP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작업의 결과로서 가장 널리 알려진 지표이다. HDI의 기본적인 가정은 생산지표 뿐만 아니라, 건강의 향상과 지적 수준의 계발 등 인간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세가지 차원으로 구성하고 4개의 지표를 지수화하여 측정한 것이다. HDI는 인간의 행복을 측정하는 요인들을 단순한 경제적 생산지표를 넘어 삶의 질과 관계된 사회적 환경을 물리적 요소들로 확장시킴으로서 1인당 국민소득 위주의 평가가 가진 한계를 일정 정도 극복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Bruni · Porta(2005)는 HDI 지수를 주도적으로 개발한 Sen이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역량이론은 eudaimonia적 행복주의에 가깝다고 하며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철학적 행복과 동일한 맥락이라 하였다.<sup>34)</sup>

연구소가 1981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세계가치조사(WVS:World Value Survey), 영국의 Rothwell과 Cohen이 발표한 행복지수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인과 행복의 관계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위의 지표들을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33) ①평균수명지수 : (평균수명-최소값)/(최대값-최소값), ②교육지수 : 2/3(성인문자해독지수)+1/3(총진학률지수), ③GDP 지수 : [log(1인당 GDP)-log(최소값)]/[log(최대값)-log(최소값)]

34) Bruni & Porta, 강태훈 옮김, 『행복의 역설:행복의 정치경제학』, 경문사, 2005, 39쪽 참조.

OECD의 NIW는 국가별 행복지수를 화폐적 지표와 비화폐적 지표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비화폐적 지표 역시 물리적 요인에 대한 측정치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명확하게 소득, 소비, 지출규모 등에 따른 경제수준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게 되는 지표들이다.<sup>35)</sup>

NIW 행복지수는 2중의 가중치 체계를 두어 각각의 요인들에 대한 행복기여도를 세분화 시키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환경 요인, 생활만족도 등 총 7개 범주에 가중치 차등이 주어져 있으며, 각각 포함된 세부지표들의 합이 다시 범주별 가중치로 차등되어 부과되어 있다.<sup>36)</sup> 행복수준의 측정에 있어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개념들을 담아내려 화폐적 요인과 비화폐적 요인으로 구분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지만, 물리적 요소 지표로 전체 가중치의 85% 이상이 구성되었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로 남아 있다.

35) OECD 지표에서 화폐적 요인은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되고, 사회적 요인 및 생활만족도는 비화폐적 지표로 구분되고 있다. 유영초, 「인간의 행복지수와 녹색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12. 46~47쪽 참조.

36) OECD에서는 행복수준에 대한 세부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 보건의료, 건강증진, 기초보장, 사회보험, 저출산·고령화, 복지서비스 등 6개 분야에 각 9명씩 총 54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지표별 가중치와 범주별 가중치 부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범주별 가중치 조사결과 건강과 경제적 요인 등이 행복 수준을 측정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윤강재·김계연, 「OECD 국가의 행복지수 산정 및 비교」, 『보건복지포럼』, 159호 2010, 94쪽 참조.

[표 1] OECD NIE 세부지표 및 지표별 가중치 체계

요인	범주별 가중치	세부지표	지표별 가중치	합
경제적 요인	.178	국민순생산(NNI)	.270	1.0
		가처분소득	.270	
		여가시간	.231	
		균등소득분배	.229	
사회적 요인(1)	.132	고용율	.419	1.0
		미취업가구원 비율	.207	
		평균 교육년수	.202	
		평균 학업성취도	.172	
사회적 요인(2)	.119	Gini 계수	.272	1.0
		상대빈곤율	.246	
		아동빈곤율	.163	
		노인빈곤율	.173	
		성별임금격차	.146	
사회적 요인(3)	.179	출생시 기대수명	.242	1.0
		건강수명	.384	
		영아사망율	.212	
		잠재적 수명손실	.162	
사회적 요인(4)	.115	지역사회활동 참여	.258	1.0
		자살율	.306	
		감옥수감자 비율	.172	
		범죄피해율	.264	
환경 요인	.133	1인당 CO2 배출량	.307	1.0
		정수시설 활용인구	.222	
		1인당 쓰레기 배출량	.257	
		경지면적당 농약사용량	.213	
생활만족	.143	생활만족도		1.0

자료 : 윤강재·김계연, 「OECD 국가의 행복지수 산정 및 비교」, 『보건복지포럼』, 2010.10, 94쪽.

2006년부터 매년 각국의 행복지수를 발표하는 영국의 신경

제재단(NEF)은 행복지구지수(HPI : Happy Planet Index)를 제시하고 있다. HPI는 영국을 비롯하여 EU 국가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인간이 소비하는 에너지, 식량, 주택 등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비용을 토지로 환산한 ecological footprint 지수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행복을 측정하는 방법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행복’과 ‘만족’의 평가가 개인의 차이 특히 개인이 속한 문화에 기인된 차이를 명확하게 담아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sup>37)</sup>

$$HPI = \frac{\text{Life satisfaction(삶의 만족도)} \times \text{Life expectancy(기대수명)}}{\text{Ecological Footprint(생존에 필요한 면적 및 에너지 소비량)}}$$

## 2. 심리적 조건에 의한 측정방식

물리적 요인에 기반한 행복측정 연구들이 hedonic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edaimonic 측면에 초점을 맞추려는 연구들은 정서적 안정 수준을 측정하는 심리적, 미시적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에서의 자기 역할에 대한 수행,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긍정적 피드백, 외부 환경과의 관계성이나 심리적으로 내재된 삶의 동기 등 비물질적인 것에 대한 추구

37) 동양 사람들 보다 서양의 사람들이 더 행복을 느끼는 경향성이 있는데, 서양인은 개인적 성취와 물질적 만족을 중시하는데 비해 동양인들은 가족, 공동체의 관계를 중시하는 집단주의적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 사람들이 집단 내부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의사표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심리적, 문화적 규범이 작용하는데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Diener, Ed. and Shigehiro Oishi, “Are Scandinavians Happier than Asians? Issues in Comparing Nations on Subjective Well-being”, *Politics and Economics of Asia*, NY: Nova Science; 김윤탈, 2009. 82~83쪽 참조.

등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그리스 철학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행복의 초점을 삶의 즐거움에 대한 경험 혹은 충족에 귀결시킨 접근방식이다.<sup>38)</sup>

물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각종 생산지수와 실업률, 빈곤, 범죄, 교육 등의 지표를 활용한다는 것은 결국 행복의 수준이 경제적 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는 측면이 강하며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행복을 정의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서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관점은 개인이 경험하는 기쁨, 즐거움 등 심리적 차원의 긍정성(부정성)으로 행복을 정의하고 수준을 측정한다. 이와 같은 접근은 국가의 성장 부문에서 물적 자원 및 인적 자원과 같은 경제적 요소가 강조되던 과거와 달리 사회자본 및 심리자본<sup>39)</sup>과 같은 정서적 요소가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관점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sup>40)</sup>

38) Ryan, R. M., Deci, E. L.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52, No. 10, 2001, p. 143 참조.

39)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제시된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은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발전 정도가 낮지만,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은 부탄의 사례를 통해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긍정성의 수준(심리적 자본)과 사회 전반에 형성되어 있는 신뢰의 수준(사회적 자본)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Ram, R. "Government spending and happiness of the population: Additional evidence from large cross-country sample", *Public Choice*, Vol. 148, No. 3/4, 2009, pp. 483-490; Leung, A., Kier, C., Fung, T., & Sproule, R., "Searching for happiness: The importance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 12, No. 3, pp. 443-462; Han, S., Kim, H., Lee, E., & Lee, H. "The contextual and compositional associations of social capital and subjective happiness: A multilevel analysis from Seoul, South Korea",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 14, No. 4, 2013, pp. 1183-1200 참조.

40) 김선아·박성민, 「OECD 국가의 행복 결정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 행복역량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제22권, 제1호, 2018, 3~5쪽 참조.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자아실현, 목표에 대한 희망, 성장, 낙관주의(optimism), 회복탄력성(resilience) 등으로 포괄되는 심리자본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회자본은 구성원간 협력을 촉진시키는 구조적인 자산으로서 신뢰성이 그 중심에 위치하게 되는데, 신뢰성은 사회와 개인의 안녕감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주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sup>41)</sup>

심리적 요인에 의한 행복의 측정은 Ryff & Keyes(1995), Ryan & Deci(2000), Seligman(2002) 등의 연구가 대표적 예인데, 이들은 주관적 측면의 행복을 단순한 만족감보다는 삶의 목적, 성장과 자아실현, 긍정적 혹은 낙관적 경향 등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특히 Ryff & Keyes(1995)는 Neugarten(1961)의 삶의 만족도(hedonism) 척도를 비교기준으로 하여 3차(1984, 1994, 1995)에 걸친 연구데이터를 활용하여 6가지 eudaimonism 척도를 구성하였고, 행복측정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분석결과, 자기수용(SA:Self-Acceptance), 긍정적 관계(PR: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삶의 목적(PL:Purpose in Life), 성장(PG:Personal Growth), 자율성(AU:Autonomy), 환경적응(EM:Environment Mastery) 등의 요인들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지표들이 개인의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별되었다.

조.

41) Seligman, M. E. P. *Authentic Happiness :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lfilment*, Free Press, 2002; Luthans, F., & Youssef, C. M. "Emerging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Journal of Management*, Vol. 33, No. 3: 2007, pp. 321-349 참조.



[그림 1] 상관관계 이론에 근거한 행복 척도의 상관성

*Correlations Between Theory-Based Scales of Well-Being and Prior Measures*

Study	Prior measures	New scales					
		SA	PR	PL	PG	AU	EM
Ryff (1989b) <sup>a</sup>	1. Happiness						
	a. Affect balance	.55	.30	.42	.25	.36	.62
	b. Negative affect	-.41	-.19	-.29	-.11 <sup>c</sup>	-.30	-.51
	c. Positive affect	.41	.26	.45	.36	.26	.42
	2. Satisfaction						
	a. Life Satisfaction Index	.73	.43	.59	.38	.26	.61
	3. Depression						
	a. Zung Depression Scale	-.59	-.33	-.60	-.48	-.38	-.60
Ryff et al. (1994) <sup>b</sup>	1. Happiness						
	a. Single item, global	.54	.38	.41	.16	.31	.51
	2. Satisfaction						
	a. Single item, global	.64	.40	.55	.21	.30	.61
	3. Depression						
	a. CES-D	-.70	-.46	-.56	-.22	-.48	-.68
Present study	1. Happiness						
	a. Single item, amount during past month	.36	.26	.13	.15	.08	.40
	2. Satisfaction						
	a. Single item, rate life overall	.42	.35	.10	.18	.12	.39
	3. Depression						
	a. Dysfunctional energy	-.32	-.22	-.05 <sup>c</sup>	-.18	-.14	-.41
	b. Dysfunctional affect	-.45	-.35	-.14	-.17	-.18	-.50

Note. SA = Self-Acceptance; PR =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PL = Purpose in Life; PG = Personal Growth; AU = Autonomy; EM = Environmental Mastery; CES-D =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y Depression Scale (Radloff, 1977).

<sup>a</sup> Affect Balance (Bradburn, 1969), Negative Affect, and Positive Affect are the subscales that comprise Affect Balance; Life Satisfaction Index (Neugarten et al., 1961); Zung Depression Scale (Zung, 1965).

<sup>b</sup> The happiness item is: "All things considered, how happy are you?" The satisfaction item is: "Thinking about your life as a whole, how satisfied are you?"

<sup>c</sup>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05 alpha level. All other coefficient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least at the .05 alpha level.

출처 : Carol D. Ryff and Corey Lee M. Keyes,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5, Vol. 69, No. 4, pp. 719-727.

본 연구에 의하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같이, 자기수용(SA), 환경에 대한 적응성(EM), 삶의 목적(PL), 타인과의 관계성(PR) 등의 지표가 행복의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강



하게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yff & Keyer(2002)는 후속 연구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 물리적 요인에 의해 측정된 hedonism 행복(subject well-being)과 심리적 요인에 의해 측정된 eudaimonia 행복(psychological well-being) 지표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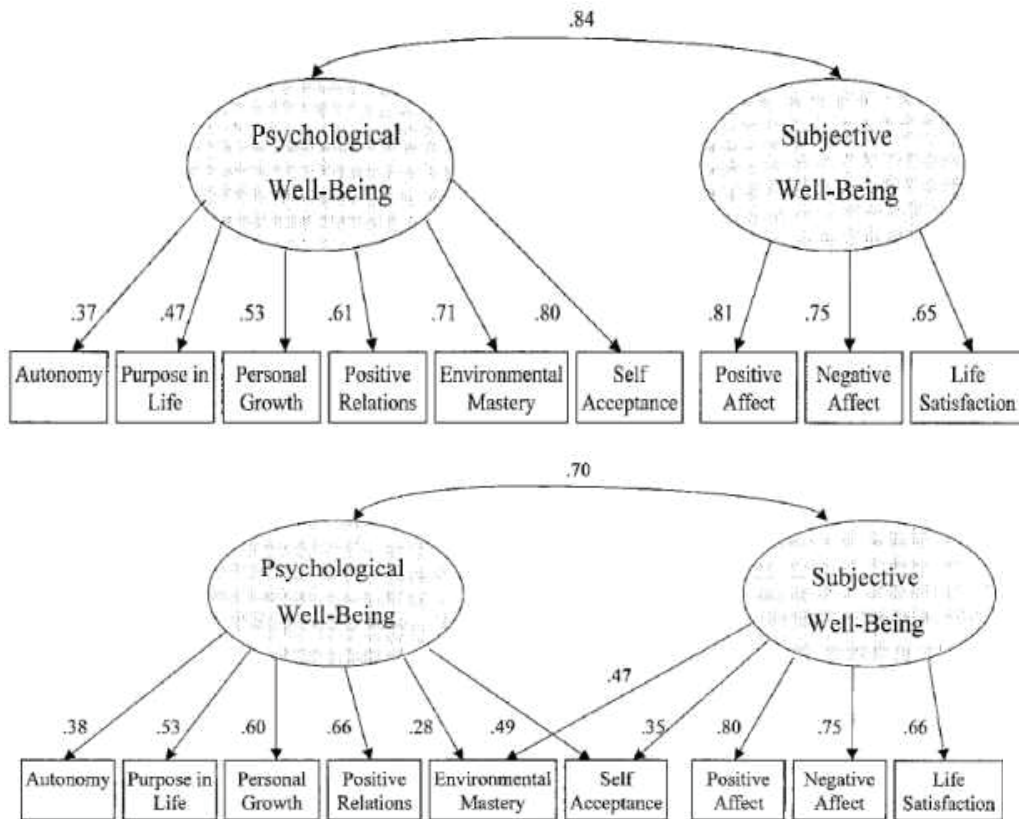
구조방정식(SEM)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두가지 측면의 행복을 잠재변수로 두고 각각의 하위 측정변수 간 교차된 상관성을 두어 순차적으로 검증하여 상위 잠재변수들의 상관성을 역으로 검증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eudaimonia 행복(psychological well-being)의 하위 측정변수와 hedonic 행복(subject well-being)의 하위 측정변수를 각각 독립된 행태로 검증한 모형에서는 모델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sup>42)</sup> 환경적응(Environment Mastery) 변수와 자기수용(Self Acceptance) 변수 등 두 변수가 subject well-being, psychological well-being에 공통요인으로 묶이면서 모델 적합도가 가장 높게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3)</sup> 아울러, 설명력도 과반수를 넘긴 50.5%의 정적 상관성을 보여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42) 모형적합도  $\chi^2=4,162.84$ ,  $df=36$ ,  $p=.000$  AGFI=.32, RMSEA=.39, IFI=.00, CFI=.00, CN=21.3

43) 모형적합도  $\chi^2=137.40$ ,  $df=24$ ,  $p=.000$  AGFI=.96, RMSEA=.06, IFI=.97, CFI=.97, CN=452.4

[그림 2] psychological well-being과 subject well-being 상관성 측정



출처 : Corey L. M. Keyes, Dov Shmotkin, Carol D. Ryff “Optimizing Well-Being: The Empirical Encounter of Two Tra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2002: 1007-1022.

즉, 물리적 요인으로 측정된 hedonic 행복(subject well-being)과 심리적 요인으로 측정된 eudaimonia 행복(psychological well-being)이 상호 중첩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eudaimonia 행복 요소인 ‘자기수용’과 ‘환경 적응’에 hedonism 행복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언급된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의 내용과 일치하며 개인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리 측면으로 발전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 IV. 왜 소득과 행복인가?

“영국의 공리주의(British Utilitarianism)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다양하고 중요한 측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행복’이라는 강력한 빛을 비춤으로써 다른 것들을 덮어 버렸다. 개개인의 쾌락을 합산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 개개인의 이익과 손실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으로는 정의의 이슈가 제대로 다루어 질 수 없다는 사실을 한동안 헛갈리게 만들어 버렸다.” 44)

위의 주장을 통해 Nussbaum은 공리주의적 hedonism에 의한 subject well-being이 행복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조차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일부 경제학자들도 높은 소득이 높은 행복을 보장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sup>45)</sup>

소득과 행복사이에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행복의 내용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도구적 수단으로 상호간에 협력적 관계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행복의 질적인 차이보다는 양적인 수준으로만 국한되도록 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즉, 국가의 양적 경제발전이 국민 행복의 총합을 늘리게 되는 최고의 목표가 되고, 이는 곧 개개인의 행복 총합이 증가되는 것이라는 등치 논리

44) Martha C. Nussbaum, “Mill between Aristotle & Bentham”, *Daedalus*, Vol. 133, No. 2, 2004, p. 60 재인용.

45) Bruni & Porta, 2005, 1-46 참조.

를 통해 경제 성장 우선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여러 연구를 통해 부유한 국가의 사람들이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다.

Veenhoven(2005)은 세계행복데이터베이스(World Database of Happiness; WDH) 분석을 통해 ‘역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sup>46)</sup> 미시건 대학의 Ingleheart(1990)<sup>47)</sup>도 20년 동안의 세계 각국 행복지수를 발표함은 물론 World Value Survey를 5년마다 실시하여 소득과 행복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행복과 경제의 관계, 그중에서도 소득 요인과의 관계를 중심에 두는 것이, - 옳고 그름을 떠나 - 행복과 유의한 영향관계를 주고 받는 다른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는가?’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 답은 국민의 행복으로 치환될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투입과 산출의 요소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소득과 같은 객관적 지표의 향상이 국민의 행복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암묵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깔고 있기

46) Veenhoven은 Bruni&Porta의 공동저서 『행복의 정치경제학』에서 고질적 사회 문제인 범죄율과 행복도를 비교하여 살인율과 행복도의 산포도를 통해 상관계수가  $-0.036$ 으로 뚜렷하지 않다고 하였다. 아울러 소득불평등 지수에서도 45개국 중 덴마크와 같은 평등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불평등이 높다고 평가되는 국가에서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시간의 스트레스에서도 생활속도가 낮은 포르투갈이 행복도가 낮게 나왔으며, 지난 10년간 시간 스트레스가 높아진 서유럽이 행복도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7) Inglehart, Ronald.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참조.

때문이다.<sup>48)</sup>

그런 연구 경향들에 반하여 Esterlin(1974, 2001)은 set point 이론을 기초로, 소득 향상을 통해 새로운 삶의 조건이 주어진 다 해도 삶의 주관적 만족도인 행복에는 변화가 없다는 주장을 한다. 변화의 요인들이 일시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있어도 그로 인한 행복 수준 변화는 영속적이지 않고 다시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sup>49)</sup>

Bruni & Porta(2005)도 적응(adaption)과 열망(aspiration)에 기초한 Treadmill effects를 통해, 소득이 증가되어도 행복에 대한 기대감 역시 마치 러닝머신에서 제자리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상호 변화가 없다고 설명하며 소득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sup>50)</sup>

이처럼 소득과 행복의 관계성 유무에 대한 논쟁의 본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진영(2012)은 효용 극대화가 행복 수준을 높이게 된다는 욕구이론에 근거해 국민소득을 바라볼 경우에는, 주관적 복지(subject well-being)와 국민소득이 정(+)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브라만 이론<sup>51)</sup>이 더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고 하였다. 결국 물량중심의 경제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48) 구교준 외, 2014; 319쪽 참조.

49) Easterlin, R.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ur of Moses Abramovitz*, New York: Academic Press, 1974, pp. 89~126; "Income and Happiness: Towards A Unified Theory" , *The Economic Journal*, Vol. 111, 2001, pp. 465-484 참조.

50) Bruni & Porta, 2005 참조.

51) 브라만 이론은 1938년 로빈슨(L. Robbins)의 논문에서 "브라만 계급은 불가촉 천민에 비해서 10배나 더 행복해질 능력이 있다" 는 언급에서 비롯되었다. 문진영, 2012, 70쪽 각주 재인용.

는 사회적 인식의 바탕이 될 것이고, 역으로 불균등 성장 전략이 전개되면서 국민의 체감행복지수가 낮아지게 되는 정책적 오류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sup>52)</sup>

## V. 소득은 행복의 독립변수인가? 조절변수인가?

행복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각각의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와 함의들을 살펴보면, 행복을 설명할 수 있는 절대 변인은 현재의 연구에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행복’이라는 것이 인간 개별의 가치관이나 고유한 문화적 다양성, 시간의 차이, 지역적 특수성, 경제적 상황 등이 내재된 종속변수이기 때문이다.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며, 소득도 수많은 요인들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설명하는 변수로 경제적 수준, 더 범위를 좁혀서 ‘소득’과의 유의성을 밝혀내기 위한 학문적 논쟁은 다른 요인들에 대한 연구보다 더 발전되었고, 각각의 주장들이 일정 수준의 논리적 정합성을 보유하고 있다.

소득이라는 요인을 통해 행복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와 요소들을 평가하고 다루는 것은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당연한 연구 방향성이다. 삶의 질에 관한 측정을 통해 증가시켜야 할 것과 감소시켜야 할 것을 규명하고 함의를 도출해 내는 것은 사회과학의 소명이다. 그러나, 행복을 제대로 논의하고 이론과 이해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행복의 수준을 높이려면 객관적 측정 이상의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52) 문진영, 2012, 71~72쪽 참조.



행복경제학의 원류인 (현대)공리주의 기본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효용성의 지배 논리는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또는 부인하게 하는 원리’로 작동하여 정책(행위)에 대한 승인(부인) 여부가 이해관계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행복 총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단층적인 판단으로만 정책을 실행하도록 한다.

이는 소득과 소비, 부의 지표가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오히려 하향하는 경험적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공리주의적 관점에 근거한 정책 행위를 선택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하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도록 한다.

소득의 절대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행복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는 UNDP의 HDI 지수, OECD의 NIW 같은 국가간 행복지수 비교를 통해서도 소득수준과 행복지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아동청소년 행복지수가 OECD 회원국가 중 최하위인 것은 국가의 경제수준 변인으로서는 직접 설명이 되지 않는 비상관성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아동청소년 행복지수는 소득과 높은 부적(-)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즉, 아동청소년과 직접 연관된 교육제도(환경)와 교육제도에 대한 적응성이 다분히 가구의 소득 수준과 밀접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가구의 소득 수준이 간접 요인 혹은 경로성을 띄고 현재의 교육제도(환경)와 결합되어 아동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논리적 추론이 나오는 것이다.



이 지점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결론적 논지이다. 즉, 행복의 수준을 결정짓는 물리적 요인들이 단순하게 기술적 총합의 효과성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변수간 결합 혹은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요인변수가 생성되어 행복에 부정(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구교준(2014)의 연구에서 분석된 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들이 행복에 미치는 관계성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와 관련식은 다음과 같다.

$$H_i = \beta_0 + \beta_1 Inc_i + \beta_2 Cap\_I_i + \beta_3 Cap\_S_i + \beta_4 Inc_i * Cap\_I(S)_i + \sum_j \beta_j Fac_{ji} + e_i \quad 53)$$

[그림 3] 소득과 교육/자유 변인간 상호작용 분석 결과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소득	0.0406** (0.0034)	0.0257** (0.0050)	0.0141** (0.0047)	0.0122** (0.0048)
소득격차		0.0256** (0.0098)	0.0255** (0.0098)	0.0273** (0.0098)
건강		0.0433** (0.0122)	0.0476** (0.0119)	0.0438** (0.0122)
교육		0.0105** (0.0042)	0.0040 (0.0052)	0.0104** (0.0043)
자유		0.0269 (0.0282)	0.0096 (0.0284)	0.0041 (0.0311)
안정성		-0.1566 (0.1104)	-0.1141 (0.1111)	-0.1323 (0.1122)
신뢰		0.0108* (0.0066)	0.0036 (0.0067)	0.0083 (0.0076)
소득*교육(역량1)			0.0003** (0.0001)	
소득*자유(역량2)				0.0015** (0.0007)
R <sup>2</sup>	0.49	0.66	0.68	0.67

\* p<0.1; \*\* p<0.05

출처 : 구교준 외, 「소득과 삶의 역량에 따른 행복 결정요인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48권 제2호 여름, 2014, 317-339.

53) Inc<sub>i</sub>는 국가별 소득, Cap\_I<sub>i</sub>는 국가별 개인수준 역량, Cap\_S<sub>i</sub>은 국가별 사회수준 역량, Inc<sub>i</sub>\*Cap\_I(S)<sub>i</sub>은 소득과 개인수준 역량 혹은 소득과 사회수준 역량간의 조절변수, Fac는 그 외 행복결정 요인 벡터를 의미한다.

분석에 의하면 행복에 대한 소득의 설명력은 타 연구에서도 제시되었듯이 50%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과 개인수준 교육역량, 소득과 사회수준 자유역량을 상호작용항으로 결합한 효과검증에서는 설명력이 67%에 이르게 된다. 이때, 생성된 두 조절변수는 전단계의 변수와는 별개의 영향요인으로 작용(생성)을 하게 된다.<sup>54)</sup> 즉, 소득과 교육, 소득과 자유라는 두 요인들이 개인의 내적 수준에서 상호결합하여 행복에 대한 조절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Ryff와 Keyer(1995)의 연구에서도, hedonic 측면의 행복 측정과 eudaimonia 측면의 행복 측정에서 자기수용(self-acceptance)과 환경적응(environment mastery)이라는 공통된 요인들이 강한 상관성을 보였듯이 행복은 특정한 지표들이 독립적인 설명력을 갖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Layard(2005)도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볼 때, 소비수준의 향상이 사회적 웰빙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못해 이러한 요인들이 개인과 사회의 선택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그 바탕에는 경쟁심과 습관이라는 시장과 개인에게 내재된 기제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 왜곡현상을 정책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사회과학은 이제 비로소 행복의 진정한 결정 요인들을 검토하고 전체가 아닌 부분밖에 설명하지 못하는 증거들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55)</sup>

54) 홍세희, 정 송,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상호작용효과 검증: 이론과 절차」,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 21, No 4, 2014, 6쪽 참조.

즉, 행복에 있어서 인간의 개인적 욕망의 물리적 투입요소인 소득은 절대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VI. 나오는 글 : 행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언

본질적으로 행복은 개인에게 속하지만, 사회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는 다층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정치, 경제, 사회, 심리 등 행복을 다루는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개인의 특성, 개인을 둘러싼 환경 등 내적·외적인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 중 논쟁의 중심 요인은 소득으로 욕구이론에 기반하여 ‘꾸준한 소득의 향상이 행복을 증가시킨다’는 주장과 만족점(set point) 이론에 의거한 ‘행복의 역설’ 등 상반된 논쟁들이 존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다.

공리주의적 욕구이론에 따른 강한 경제성장 정책은 이면의 불균등한 (소득)집중 현상이 우려되고, 만족점 이론은 만족점의 도출과 현실 적용 가능성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놓치지 말아야 핵심 논지는 행복이라는 가치에 소득과의 상관성에 대한 논쟁이 활성화 될 수록 경합성과 배재성의 논리가 배태(胚胎)된 ‘행복의 상품화’가 학문적 발전과는 무관하게 점점 더 깊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Lane(1993, 2000)은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돈으로 살 수 있는 물질적인 것과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비물질적인

55) R. Kayyard, *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 London, Penguin, 2005 참조.

것으로 구분하여 볼 때, 경제성장과 같은 물질적 요인들이 비 물질적인 요인들을 훼손하거나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또 어떻게 해야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sup>56)</sup>

행복의 달성 내지는 극대화를 위해 eudaimonism에 근거한 도덕적·윤리적 행복 추구를 사회정책의 목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기회를 증진시키는 행위 등이 다른 가치들과 충돌할 위험성을 최대한 약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복의 상품화(시장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행복의 탈상품화’를 정책적으로 꾀하여야 한다. 개인을 둘러싼 행복 달성 기제인 가족(호혜성)과 국가(권위), 시장(경쟁)의 세가지 매커니즘이 상호 공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화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서 ‘공동체의 최대 행복’이라는 행복의 공공성 강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득과 상호작용을 통해 파급효과성이 증폭될 수 있는 공공재의 확대 및 기존 공공재의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가장 비근한 예로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사태를 들 수 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시장 기제를 통해 확보될 것이라 여겼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가 행복을 달성했는가?’라는 사회적 의문을 던지게 되었고, 공공성 강화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되었음을 목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문과 해답은

56) Lane, R. E. “Does Money buy happiness?”, *Public Interest*, 1993 Fall. pp. 56-56; Lane, R. E. “Universal happiness”, *The World Book of Happiness*, 2010, 253-255 참조.

N포세대의 청년계층과 고독사의 문제가 점차 심각해 지는 노년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빈곤에 대한 의제가 계급간 분배의 문제로 귀결되어 끊이지 않는 정책 논쟁을 이어가듯이, 행복 역시 소득의 패러다임을 극복하지 않으면 빈곤 담론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빈곤의 문제는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해결해야 하고, 행복은 소득의 극복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구교준 외, 「행복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정부학연구』, 제21권 제2호, 2015.
- 김균, 「이스털린 역설과 관계재」, 『사회경제평론』, 제42호, 2010.
- 김요한, 「행복과학과 행복철학」, 『철학논총』, 제85집, 제3권. 2016.
- 김윤탈, 「행복지수와 사회학적 접근법 :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 『한국사회학회 공동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2009.
- 김혜경, 「객관화된 행복: 측정의 기술과 측정 너머의 감성」, 『감성연구』 제15집, 2017.
- 성보훈·윤선아, 「행복의 정의와 발달단계별 결정요인」, 『뇌교육연구』, 6권, 2010.
- 우창빈,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정책은 가능한가? : 행복을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의 이론, 논란, 가능성과 조건들」, 『행정논총』, 제51권, 제2호, 2013.
- 윤강재·김계연, 「OECD 국가의 행복지수 산정 및 비교」, 『보건복지포럼』, 159호, 2010.
- 조동훈, 「행복의 분석적 개념과 측정방법」, 『노동경제논집』, 제40권 제3호, 2017.
- 홍병선, 「행복에 관한 인문학적 성찰」, 『시민인문학』 21권,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 홍세희, 정 송,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상호작용효과 검증: 이론과 절차」,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 21, No 4, 2014,
- Bruni & Porta, 강태훈 옮김, 『행복의 역설 ; 행복의 정치경제학』, 경문사, 2005.
- Allen Rubbin, Earl Babbie,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Brooks/Cple Publishing Company, 1997.
- Carol D. Ryff and Corey Lee M. Keyes,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9, No. 4, 1995.
- Davidson, R, Marshall, J., Tomaken, A., & Henriques, J. “While a Phobic Waits: Regional Brain Electrical and Autonomic Activity in Social Phobics during Anticipation of Public Speaking” , *Biological Psychiatry*, Vol. 47, No. 2, 2000.
- Diener, Ed. and Shigehiro Oishi, “Are Scandinavians Happier than Asians? Issues in Comparing Nations on Subjective Well-being” , *Politics and Economics of Asia*, NY: Nova Science, 2005.
- Easterlin, R.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Some Empirical Evidence” ,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ur of Moses Abramovitz*, New York: Academic Press, 1974.

- Easterlin, R., “Income and Happiness: Towards A Unified Theory.” , *The Economic Journal*, Vol. 111, 2001.
- Fernandez-Dols, J. & Ruiz-Belda, M., “Are smiles a Sign of Happiness? Gold medal Winners at the Olympic Games”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9, No. 6, 1995.
- Frey, B.S. & Stutzer, A. *Happiness and Economics : How the economy and institutions affect well-being*.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2002.
- Frey, B., & Stutzer, A. “Happiness Prospers in Democracy” ,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 1, No. 1, 2002.
- Han, S., Kim, H., Lee, E., & Lee, H. “The contextual and compositional associations of social capital and subjective happiness: A multilevel analysis from Seoul, South Korea” ,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 14, No. 4, 2013.
- Inglehart, Ronald.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Kahneman, D., E. Diener, and Schwarz (eds), *Well-being :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s Press, 1999.
- Lane, R. E. “Does Money buy happiness?” , *Public Interest*, 1993.
- Lane, R. E. “Universal happiness” , *The World Book of*

*Happiness*, 2010.

Leung, A., Kier, C., Fung, T., & Sproule, R., “Searching for happiness: The importance of social capital” ,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 12, No. 3, 2011.

Lu, L. “Understanding Happiness: A look into the Chinese Folk Psychology” ,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 2, 2001.

Luthans, F., & Youssef, C. M. “Emerging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 *Journal of Management*, Vol. 33, No. 3, 2007.

M. E. P. Seligman, *Authentic Happiness*, New York: Free Press, 2009.

Martha C. Nussbaum, “Mill between Aristotle & Bentham” , *Daedalus*, Vol. 133, No. 2, 2004.

McMahon, D. M. *Happiness: A History*. NY : Atlantic Monthly Press, 2006.

Meyers, D., & Diener, E. “Who Is Happy?” , *Psychological Science*, Vol. 6, 1995.

Nussbaum , M. *The Fragility of Goodness: Luck and Ethics in Greek Tragedy and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R. Kayyard, *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 London, Penguin, 2005.

Posner, R. A. “Utilitarianism, Economics, and Legal Theory” ,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Vol. 45, 2001.

- Ram, R. "Government spending and happiness of the population: Additional evidence from large cross-country sample" , *Public Choice*, Vol. 148, No. 3/4, 2009.
- Ryan, R. M., & Deci, E. L.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52, 2000.
- Ryan, R. M., Deci, E. L.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52, No. 10, 2001.
- Ryff, C, D., & Keyes, C, L. M.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9, 1995.
- Schwarz, N,. & Strack, F. "Reports of subjective well-being: Judgemental process and their methological implications" ,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1999.
- Seligman, M. E. P. *Authentic Happiness :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lfilment*. Free Press, 2002.
- Tatarkiewicz, W. *Analysis of Happiness*, Warsaw: Polish Scientific Publisher, 1976.
- Veenhoven, R, "Developments in Satisfaction-Research" , *Social Indicators Reaserch* Vol. 37, No. 1, 1996.

## **A study of income variable on determination of happiness: Independent or control variable**

Kang, Sangjun

(Sogang Univ.)

Mun, Jin Yong

(Sogang Univ.)

In essence, happiness belongs to an individual but it has a multi-tiered nature, influenced by the social environment to which he or she belongs. It is in this regard that the academic disciplines dealing with happiness commonl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t the heart of the debates on happiness in modern era lies the relative income hypothesis (Duesenberry, 1948; Easterlin, 1974) that emphasizes happiness is best understood in relative terms. Whilst the Easterlin camp maintains that income increase does not, of very little if any, raise happiness, above a satiation point, the need theorists such as Veenhoven(1991, 1996) argues that income increase, however little it may be, does make people happier. There is a concern, however, that 'commercialization of happiness' will progress more and

more deeply in the capitalistic market system, regardless of the academic debates on the income-happiness nexus. Therefore, the authors share the perception that we need 'de-commodification' of happiness measures to prevent further commercialization (or marketization) of happiness. The authors duly conclude that a paradigm shift is needed to enhance public happiness; from the Benthamite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of people' to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community'.

**Subject :** Social · political philosophy, Social welfare policy,  
Humanities

**Key Words :** Happiness, Eudaimonia, Hedonism, Subjective  
happiness, Psychological happiness, Happiness  
index, Utilitarianism, Maximum happiness